

제21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시 정 질 문

신 성 철 의 원

제21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시 정 질 문

신 성 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76만 안산시민을 위해 밤 낮 없이 일하고 계신 제종길 시장님 !

시장님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민이 살기 좋은 보물섬 대부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시장이 된 지금은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려는 등 공약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지역구인 의원으로 이점 감사드리며 진정 대부도가 보물섬이 되기 위한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에 박물관 거리를 조성하고 거리 휴게실 설치하며 다양한 체험 관광지 조성 사업 등으로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 했습니다만, 현재 대부도는 각종 규제 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대부도는 경기도 전체 경관지구 44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20개소가 지정 되었고, 지정 면적은 경기도 지정 면적 20,847,200m²의 30%에 가까운 6,262,965m²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지구 지정의 취지는 본의원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안산시 경관지구는 2001년도에 지정했고 벌써 1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너무도 달라졌고 오랜 시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고통 받은 주민을 생각한다면, 2015년에 추진할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과도하게 지정된 대부도의 경관지구 지정 면적을 현실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가 2년 이상 소요 되므로, 행정절차 완료 전에 대부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자 하는 시민과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펜션 등 양질의 숙박 시설과 주민을 늘리기 위해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현재 안산시는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심의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심의를 위해 건축주는 1건당 300~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초 건축 하려던 대부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숙박 시설 건축 후 비용 회수를 위해 높은 숙박 비용을 징수해 관광객들도 증가한 숙박비용이 부담돼 인근 영흥도 등으로 숙박 장소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체류형관광과 인구의 증가가 안산시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본의원은 현재 안산시 경관 조례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둔 『대부동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농어업인의 2층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의 조항을 소규모 건축물(2층

이하의 주택) 정도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도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므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도 해솔길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도는 연간 9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이며, 이 중 많은 관광객이 해솔길을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도 발 맞춰 해솔길을 찾는 증가한 관광객을 위해 해솔길 정비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코스에서는 아직 주차장이 미비하여 관광객과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해솔길 4코스(흘곶쪽박섬-행남곡)는 메추리섬 입구, 흘곶 유어장 진입로 앞을 지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코스지만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관광객들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농기계는 도로 운행이 불가해서 절기가 중요한 지역 농업에 피해를 주며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린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계획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가 진행 될수록 훨씬 많은 관광객이 대부도와 해솔길을 찾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안산시가 계획 중인 2025 주차장 계획에 대부남동 628-15, -16, -17번지를 반영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풍도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야생화로 유명한 서해안의 보물과 같은 섬입니다. 현재 아름다운 풍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풍도 면적의 90% 이상이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 되어 있습니다.

도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에 발 맞춰 안산시도 풍도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과 풍도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빛을 발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진정 원하는 도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현재 전체 풍도 면적의 90% 이상으로 과대하게 지정 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도 풍도의 자연훼손을 반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부정형하고 극도로 좁게 편입 된 현재의 풍도 자연녹지지역은 풍도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풍도의 자연녹지지역을 확대하여 도서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풍도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나아 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안산시 환풍구와 맨홀 등의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달 17일 성남시에서 환풍구 추락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사라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고조 된 시기에 일어난 사고라 이번 사고를 접하는 국민 모두 안타까움과 위기의식은 평상시의 배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명이 사라진 사고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지역 내에 설치된 환풍구를 일제 조사했고 그 결과 환풍구 숫자는 모두 8천445개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우리 안산시의 환풍구 숫자는 619개소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환풍구에 대한 안전 및 설계기준이 미흡하고 시·군과 소방서 등 전문 안전점검 인력 부족, 재난관리기금 투입이 어렵다”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공공자금 선 투입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야별 전문점검인력을 확대 및 건축구조기준 마련에 대한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가 강구 되었으면 소중한 인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안산시에서도 각종 시설물 점검과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중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에는 619개소의 환풍구 외에 무려 24,435개에 달하는 하수구 맨홀과 606개에 달하는 가로등 분점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환풍구 사고로 모든 안전 관련 행정력이 환풍구에 집중되지만 이러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병행되어야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속히 이에 대한 계획수립과 안전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11. 6.(목)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15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서면답변]

< 서면 질문 : 1의원 4건 >

【 서 면 답 변 】

○ 신성철 의원 : 4건



안 산 시

□ 신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동경관 지구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대부동지역의 경관지구 조정
- 경관지구내 건축물 심의기준 완화 또는 생략

- 우리시에서는 2001년 대부동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구릉지·해안가 등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경관지구 2백 9십만㎡와 수변경관지구 3백 3십 만㎡ 등 6백 2십만㎡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계획도시로써 2011년 6월 2020 안산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도시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고 있으며, 2013년 8월부터 안산시

색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안산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후 2013년 8월 경관법이 전부 개정,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강화되어 우리시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2014년 8월 12일 안산시 경관조례를 전문 개정한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층 이하의 모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자하신 사항은 현재 대부도에는 유리섬 박물관, 베르 아델 승마장, 대부해솔길 등 여러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펜션 등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관법이 개정된 이후 대부도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총 74건 중 89%인 66건이 2층 이하이고 8건만이 3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 또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경관지구내 난개발 등을 우려하여 경관지구별 행위를 3층 또는 12m로 제한하고 있는바, 규모에 따른 경관심의 생략은 경관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향후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며,
- 그간 경관위원회 심의한 74건 중 80%인 59건이 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요 기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소위원회 개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관지구 지정 이후 15년 정도 경과된 현재, 주변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이 살기 좋은 보물섬 대부도”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도에 착수 예정인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경관지구 조정 부분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개발행위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하여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예방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대부도 해솔길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대부해솔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안산시가 계획중인 2025 주차장 계획에 대부남동 628-15번지 일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대부해솔길은 개통 이후에 내방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늘어나는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시에서는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5년 1월 용역 발주 예정으로 2014년

7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통하여 2015년 본예산에
용역비 6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2016년 연말까지 본 용역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으로, 안산시 전역의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조성관련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주차문제
진단, 주차시설 적정 공급 규모 산정 검토를 통해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의 주차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고,
- 질의하신 대부남동 628-15번지 일대도 본 용역에 포함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개요>

○ 용역 추진 목적

- 목표년도(2025년)까지 필요한 주차장용지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별 투자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용역 개요

- 기 간 : 2015. 1. ~ 2016. 10.(22월)
- 용 역 비 : 620,000천원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5년), 중기목표연도(2020), 장기목표연도(2025)
 - 공간적 범위 : 안산시 행정구역 149.06km²(대부도 포함)
 - 내용적 범위 : 주차수요예측, 주차정비기본계획수립,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결론 및 건의

-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도 지역 용도 재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발언 요지 > —

- 풍도 전체 면적의 90%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여 풍도 발전 및 관황 활성화 도모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풍도의 경우에는 2001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을 세분하면서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임야를 중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시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임목 본수도 50% 미만, 해발고도 40미터 미만, 평균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 풍도의 보전녹지지역의 표고 및 경사도에 대한 검토 결과 표고 40m 미만의 토지는 전체의 23% 정도으로써 해안변 및 서측 골재채취장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 보전녹지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여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도에 발주예정인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시 풍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풍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풍도 용도지역 지정 현황

| 구분 | 계 | | 보전녹지 | | 자연녹지 | |
|----|-----------|--------|-----------|--------|---------|--------|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계 | 1,634,805 | 100.0 | 1,423,972 | 87.1 | 210,833 | 12.9 |

- 이어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기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안산시 기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은?
- 지난 10월 17일 성남시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 대상은 환풍구를 비롯해 공연장, 승강기, 지역 축제, 광고물, 어린이놀이시설, 건설공사장 등 16개 분야 재난 취약시설입니다.
- 현재 관내 환풍구 619개소에 대해 1차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험요소가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구조 기술사를 초빙하여 11월14일까지 2차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지역축제 등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행사는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배치 등 안전 관리를 심의하고, 행사 시설물은 소방서,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구 외 15개 분야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말까지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도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24,435개소의 맨홀 중

노후 된 하수도 맨홀 590개소를 올해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파손 및 노후된 맨홀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하고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관내 가로등 분전반 606개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분전반에 대하여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방치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 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